



한국의 보물, 해인<1>

편집자 주:

지금까지 <석가모니는 미륵을 기다렸다>는 글을 애독해주신 구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총 59회에 걸쳐 불경에 관한 해박한 지식으로 많은 통찰과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신 필자 卍鍾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호부터는 해인 연구의 최고 권위자인 김택 박사님의 글을 연재합니다. 김 박사님은 1963년 생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 부설 한국학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증산교단 미륵신앙의 성립과 전개』의 40여 편의 논문과 『조선의 예언사상』(2016), 『일제강점기의 예언사상』(2019), 『정감록과 격암유록』(2021), 『증산사상과 한국종교』(2022), 『시루와 배』(2023) 등 12권의 책을 저술한 신종교 학계의 저명한 연구가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전라북도 무주 산골에 거주하면서 오직 학문 연구에 매진하시는 김 박사님의 글은 독자들에게 유익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해인이야기(1)

서구에는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바탕으로 믿어져온 성배(聖盃)가 있고, 아랍문화권의 검은 돌과 알라딘의 마법램프와 동양권의 여의주와 도깨비방망이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상 신비한 힘을 지닌 실물의 형태로 있다고 믿어지는 보물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와 믿음이 전한다.

흔히 이러한 보물들은 그 속성상 초월적이고 강력한 존재나 원리 또는 이상향과 연관된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보물은 세속적인 시각으로는 찾기 어렵거나 구하기 힘든 특별한 물건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보물에 대한 전설은 단순히 지나가 버린 옛날이야기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여전히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살아있는 신화'로서 사람들에게 여전히 받아들여지고 있다.

해인(海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어떤 이야기가 과연 언제부터 민간에 유포되었는지를 정확하

게 아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특정 개인이 수집한 해인설화는 그 객관성을 검증받을 길이 없다. 따라서 필자는 문자로 기록된 자료로 제한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설화모음집인 『한국구비문학대계(韓國口碑文學大系)』(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에 수록된 설화 가운데 해인설화로 볼 수 있는 설화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물론 이외에도 다양한 해인설화가 전국 각지에서 전승되고 있을 것이며, 향후 체계적인 조사에 의해 채록되고 연구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구비문학대계』의 설화 가운데, '해인설화(海印說話)'로 분류할 수 있는 설화는 모두 16편이다. 여기서 해인설화는 "해인(海印)과 관련이 있는 설화"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필자는 비록 제목에 직접적으로 '해인'이라는 표현이 없더라도 용왕의 아들에 의해 얻은 보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설화도 해인설화에 포함시켰다. 아래에 나열된 설화의 순서는 『한국구비문학대계』의 책 번호에 따랐는데, 설화의 제목과 수록 부분은 다음과 같다. 『해인사의 유래』, 『한국구비문학대계』 1-1 서울특별시 도봉구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626쪽-632쪽 외 15 출처(『한국의 보물, 해인』, 도서출판 북코리아 2009, 32-34쪽 참조)

옛날 옛적에 어떤 할아버지가 한 분 사셨어. 그런데 어느 날 난데없이 누런 개가 한 마리 집안으로 뚫속 들어왔더라. 혹시 주인이 있는 개가 아닐까 해서 쫓아내도 가지 않고 있더라. 할아버지는 할 수 없이 그 개를 길렀는데, 삼 년 정도 지났을 무렵 갑자기 개가 보이지 않는 게야. 온 동네를 찾아다니 보았지만 개를 찾을 수 없어 포기한 할아버지는 그동안 장이 들어 한동안은 그 개를 잊지 못했단다.

그럭저럭 세월은 다시 흘러 몇 년이 훌쩍 지나버렸더라



용왕영화

다. 하루는 할아버지가 뒷마루에 앉아서 무료하게 있었는데, 흰 잘생긴 청년이 집으로 들어오더니 "어르신, 저를 모 르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더라. 할아버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청년이 낯설어 "아니, 나는 잘 모르겠는데..." 라고 대답했단다.

그러자 그 청년이 "어르신, 제가 몇 년 전에 어르신께서 길러주신 바로 그 개입니다." 라고 정체를 밝히더라. 깜짝 놀란 할아버지가 "개가 사람이 되다니, 도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게냐?" 고 말했더니, 그 청년이 "어르신,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원래 바닷속에 있는 용왕국의 태자였는데, 그때 제가 인간 세상에 비를 내리는 책임을 맡았다가 그만 실수로 비를 너무 많이 내리게 해서 수많은 인명을 해친 죄를 지었답니다. 죄 때문에 개 허물을 입고 인간 세상으로 쫓겨 와서 마땅히 갈 데도 없이 헤매고 다니다가, 어르신을 만나 삼 년이나 목숨을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설명하더라.

할아버지가 "그렇다면 지금은 왜 나를 찾아왔느냐?" 고 묻자, 그 청년이 "그때 제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를 갚기 위해 어르신을 모시고 오라는 부친의 말을 받들어 이렇게

왔습니다. 할아버지, 저와 함께 용왕국 구경하러 가지시요." 라고 대답하더라.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 청년을 따라 동해바닷가로 갔단다.

바닷가에 도착한 청년이 할아버지를 등에 업은 채 입으로 뚫어 놓은 바닷가 바위가 딱 갈라지더니 길이 환하게 뚫리더라. 할아버지와 청년이 한참을 바닷속에 난 길을 걸어갔더니, 온갖 기화요초가 만발하고 향긋한 냄새가 진동하는 별천지가 열리더라.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몇 날 며칠을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예쁜 시녀들의 시중을 받으며 잘 지냈단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문득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단다. 그래서 용왕국 태자라는 그 청년에게 "내가 이만큼 잘 대접받았으니 이제는 집으로 갈란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용왕국 태자가 할아버지에게 "인간 세상으로 떠나시기 전에 저희 아버지인 용왕님이 부르실 텐데, 그때 소원 하나를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소원은 말씀하시지 말고 '용왕국 정치할 때 사용하는 해인(海印) 하나만 달라.' 고 말씀하세요." 라고 신신당부하더라.

다음 날 아침에 드디어 용왕국 국왕이 할아버지를 부르더라. 할아버지가 어마어마한 궁전 안으로 들어갔더니, 용왕이 "불민한 우리 아들을 살려주신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겠습니까마는, 평소엔 생각하셨던 소원을 하나만 말씀해 주시오. 내 꼭 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라. 할아버지가 용왕국 태자의 말을 기억하고는 "저는 돈이나 쌀은 충분히 있습니다. 듣자 하니 용왕국을 다스릴 때 사용하는 해인이라는 보물이 있다던데, 그것 하나만 주시면 무척 고맙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단다.

용왕의 얼굴이 찌푸려지더니 오랫동안 고민하더라. 이윽고 용왕이 "내가 이미 약속한 일이니 할 수 없구나. 아들을 살려주신 분이니 특별히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는 자기 책상 서랍에서 물그릇처럼 생긴 물건 하나를 할아버지에게 주었단다.

- 다음호에 계속

성경 예언 해설집 <최종회 34>

사도 요한

- 지난호에 이어서 -

천년성 천년 세계(계20장)

계시록의 기사를 육적으로, 직설적으로 해석하므로 숨겨진 비밀은 알지 못하고 장님 코끼리 구경하듯 신학자들이 여러 갈래로 논쟁을 하고 있다.

성경의 기록을 가감하지 않고 신앙한다는 정통 성경 무오론자(無謬論者)들은 예수가 강림할 때 순교자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고 신앙을 지킨 자들이 첫 부활에 참여하여 공중 혼인 잔치에 올라갔다가 백마를 탄 예수를 선두로 성도들이 지상으로 내려가 사단을 무저항에 가두고 천년 세계, 지상 천국에서 예수와 더불어 왕노릇하다가 천년이 차면 사단이 석방되어 나와서 성 밖에 있는 백성, 곡과 마곡을 충동하여 성 안에서 예수와 같이 영광을 누리라는 성도를 멸망시키려고 포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소멸하고 성안에 있던 성도들은 하늘로 승천하여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라는 신학설을 대부분 주장한다.

또한 계시록의 기사는 상징적으로 기록하였을 뿐이고 예수 강림시 공중에서 예수를 영접한 성도는 혼인 잔치를 치르고 지상에 내려오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고 땅의 천년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교파도 있다. 7장에서 14만 4천은 삼위일체 하나님 당신을 가리킨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20장에서 첫 부활에 참여하는 자, 둘째 사망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성도, 천년성에 들어간다는, 거룩한 천년성은 많은 사람이 사는 육적 성이 아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성전으로 표현하듯이 천년성, 거룩한 성은 하나님 당신을 가리킨 것

이니 본문에서 성을 예위한 무리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소멸한다고 기록하였는데 육적 재앙의 불이 아니다.

천년성 하나님은 12장에 기록한 여자이니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이긴자를 출산한 영모님이다. 그가 마귀의 장막을 뚫고 피난처로 가지 못한 사실을 12장에서 설명하였다. 20장에서 천년성이 되신 영모가 성을 예위한 악한 무리를 뚫고 나오지 못하고 죽은 것을 성경에서는 불이 내려와 성과 성을 포위한 무리를 멸하였다고 하였으니 슬리자를 배출한 영모와 그를 따르던 신도는 없어지는 것을 말한 것이니 세칭 전도관의 시종(始終)을 말한 것이다.

계시록의 모든 기사는 한반도 이긴자와 관련된 사건들이니 지금까지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중동 지역 또는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는 사실로 해석함으로써 짝이 맞지 않고 엉뚱하게 억지 해석을 하므로 허공을 치고 있다.

이긴자를 출산하기 전까지 영모님이 신도들의 목적이로 천년성에 살아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실상은 당신이 천년성 인고로 당신 앞에 온 자는 천년성에 온 것이 된다. 성경에서 천년성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뜻되는고로 마귀에게 점령되는 기사가 있는 것으로 봐서도 영생의 나라, 신천신지는 아니니 영모님이 셋째 울타리, 삼천성을 말씀하면서 신도들에게 그곳에 가라고 하였다.

새 예루살렘(계21장)

예수교 신도들은 하늘에 새 예루살렘 도성을 흠모하며 그곳을 영원한 본향으로

믿으면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 호화찬란한 도성은 하나님의 지혜로 꾸며진 극치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요한이 환상으로 본 하늘나라 도성이 과연 실존하는 성인가. 성의 크기가 1만 2천리 장광(長廣高)가 똑같은 성의 모양과 12문과 12천사며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 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7장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며 1만 2천과 백이 같은 것은 7장에서 14만 4천이 육적 숫자가 아니고 12수, 완전수로 하나님의 본체를 가리킨 것이라고 전전에서 말하였듯이 새 예루살렘의 아름답고 영화로운 광경도 눈에 보이는, 사람이 들어가 사는 도성이 아니요 의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무형의 마음 상태를 유형적 건축물로 표현한 것이다. 본문 기사를 전부 육적으로 해석하니 짝이 맞을 수가 없다.

성경상 예루살렘은 아브라함 당시 제사장 멜기세덱이 살렘의 왕으로 있을 때부터 부르는 지명이다. 그 이후 사사 시대까지 여부스로 부르다가 다윗이 유대 왕국을 세우면서 수도로 정하고 예루살렘으로 개칭하였다. 2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 성소를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한 점으로 경모하면서 유대교는 장차 오시는 메시아는 예루살렘으로 강림하여 만민을 다스린다고 믿고 있다.

예수교가 하늘나라를 예루살렘으로 표현한 것은 유대교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니 유대교는 땅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고 믿고 있으며 예수교는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새로 생겼다고 주장하여 새 예루살렘으로 부르는 것이다. 성경에서 시온이라는 어휘가 예루살렘

보다 몇 배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루살렘과 같은 뜻이니 아브라함 당시는 모리아산으로 부르면서 아브라함이 제사드리는 산으로 예루살렘 시내 동쪽에 위치한 작은 언덕에 성전을 지은 이후 그곳은 성지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마음의 고향으로 삼고 있다.

아시아의 글(사 2장)에서 율법시 시온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하였는데 유대교의 해석은 메시아가 시온에 오시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으로 만국을 치리(治)한다고 믿고 있으나 이것 역시 땅의 시온과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시온이니 완성자가 거룩한 성이요 시온으로 자유율법과 말씀으로 철장을 삼아 만국을 다스리는 것이다.

땅의 예루살렘은 4천년 긴 세월 주인이 수도 없이 바뀌면서 많은 피를 흘리며 싸운 곳으로 지금도 유대교와 회교가 작은 도시를 동서로 분할하여 차지하고 있으면서 적대시하고 있으니 복지가 아니고 화지(禍地)가 되고 있다.

하늘에 있다는 상상적인 예루살렘도 요한이 글에서 언급하였을 뿐이요 예수교 신자가 한 사람이라도 새 예루살렘이 있는 것을 확인한 사람이 없으니 가상적인 것이다.

생명 나무

본문(계 22:1-2)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 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해설

21장에서 새 예루살렘 기록한 성은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형상 있는 도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본체이니 당신의 영화로운 마음의 상태를 세상 사람의 말로는 그 이상 아름답고 존귀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열두 가지 보석과 진주로 성을 꾸렸다고 기술하였다. 또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로 표현도 하였다.

22장의 생명 강, 생명 나무도 땅에 심은 나무가 아니고 땅으로 흐르는 강물이 아니다. 태초 예텐동신의 생명 나무도 땅에 심은 나무가 아니듯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라는 생명수는 거룩한 하나님의 몸에서 흐르는 생명이니 도성인신(道成人身)하신 이긴자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신이 이슬의 은혜, 생명수가 넘쳐 흐르고 있으니 하나님의 이슬은 만민이 마시고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열두 가지 실과가 달마다 맺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수(完全數)를 표시한 것인 글에서 언급하였을 뿐이요 예수교 신자가 한 사람이라도 새 예루살렘이 있는 것을 확인한 사람이 없으니 가상적인 것이다.

22장 마지막 말씀의 끝지는 때가 가깝다고 하였고 내(예수가) 속히 오리라는 말

이 거듭되었으니 예수를 신실하게 믿으며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 오기를 고대하며 사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다. 2천년 가까운 긴 세월 허다한 사람들이 헛된 고생을 하면서 살아 죽었다.

다만 예수를 믿다가 죽어도 행복하게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위로를 받을 수 있으나 임종시에 태반이 의식을 잃으므로 기쁨으로 세상을 이별하는 자가 없으며 많은 사람이 공포에 놀리고, 죽는 순간까지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체험한 필자는 50년 신앙 생활에서 25년 목회를 하면서 평생시 내세의 소망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신자들도 죽을 때는 내 손을 잡고 "나를 살려주세요. 조금만 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하면서 애원하는 신자까지 목격하면서 깊이 깨달은 것이 있으니 내세 천국은 없는 것이라는 것을 나의 신앙 양심으로 증거하는 것이다. 요한이 환상 중에 천사를 통하여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였으나 뜻을 알고 기록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심판으로 무한대로 쏟아지는 재앙은 지구가 불에 타서 녹아지고 그 가운데 모든 생명체가 소멸되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과연 이 세상은 시한폭탄을 장진한 화약고와 같은 것인가. 예수교의 주장대로 현세는 장광성(曠城)인가.

성경의 언약은 메시아가 오시면 현세에서, 지상에서 시온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다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증거하였으니 지구와 우주는 영존하면서 희락과 기쁨을 누리고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불사영생의 노래 소리는 끝없이 이어지리라.* 차승도